

[발언록]

해피시니어 2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전문직 퇴직자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와 과제

- 일시 : 2008년 11월 25일 13:50~16:00
- 장소 : 63빌딩 엘리제홀
- 개회사 및 인사말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사회 : 김운호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 발제 : 홍선미 (해피시니어 사업단장,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학영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토론 :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 부연구위원)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강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한석규 (행복설계아카데미 5기 수료생 대표)

<인사말> 박원순 상임이사

왕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풍수를 보는, 가뭄 등을 예측하는 사람이었다. 현대사회에서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 우리가 제대로 못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아닌가 싶다. 일본이 '단카이 세대'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한국은 그만큼도 대비하지 못했다.

현재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이 200명에 달하고, 그분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NPO영역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보람 있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지혜와 인적 네트워크 등을 가진 은퇴자들의 효용가치가 은퇴와 함께 사라지는 듯한 야만적인 문화가 아직 한국에는 있는 것 같다. 미국 같은 경우 공무원들 정년이 없다. 그만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 부족하지만 대한생명의 지원을 얻어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벌써 2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 완성되려면 많이 멀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대한생명 쪽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세 명의 **Happy Senior Awards** 수상자를 선정해 은퇴 후에 더욱 중요한 삶을 사는 분들에게 상금이 크지는 않지만 상을 드리려고 한다.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 내년에 더욱 완성된 해피시니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사회> 김운호 교수(경희대 NGO 대학원)

5번 정도 사회를 맡은 것 같은데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한다. ‘해피시니어’, 어쩌면 이름을 이렇게 잘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평소 ‘어떻게 하면 시니어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잘 묻어나는 듯 하다. 토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20분씩 발제, 4분이 각각 10분 미만 으로 토론을 해주셨으면 한다. 대신 질의시간을 충분히 배정해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발제 1> 전문인 퇴직자의 비영리단체 참여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홍선미 교수(해피시니어 사업단장,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그동안 해피시니어 사업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의미를 말씀드리겠다. 개인적으로 영광이라 생각한다.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말씀 드리기 보다 교육프로그램인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인적자원의 손실이다. 축적된 경험을 은퇴 이후에도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 생각한다.

50~70대에 이르는 개인의 능력, 사회의 투자가 필요한 분들을 오히려 소외계층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개인의 사회적 활동의 의미뿐 아니라 이것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의 공헌에 의미를 갖게 함으로써 개인의 역량강화,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비영리 단체를 타겟으로 잡았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각기 다른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조사를 먼저 시작했다.

자료집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기본적인 내용은 직장인과 퇴직자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퇴직자는 어떻게 사고하는가, 사회공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다.

40~70대에 이르는 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자 하는 의식이 크게 나타난다. 그것은 보상의 결과이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삶의 의미를 풍부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안고 아카데미를 시작 하였다. 현재 약 7기에 이르면서 많은 수료자가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제2기 인생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만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게 한 발짝 한 발짝 안내하는 교육 이었는데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각자 가졌던 전문 능력을 충분히 살릴 수 없었던 아쉬움은 있다.

그림1을 보면 1단계부터 4단계로 나와 있다. 복잡한 과정인 이유는 민간기구와 비영리단체는 일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교육 이외에도 개인적인 컨설팅과정도 포함하면서 기본교육, 개인 상담, 현장 실습 등의 약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앞으로의 참여의 가능성 등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들은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통해서 자신이 삶의 모습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조망하고 NPO와의 상관성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한다.

행복설계 아카데미의 수료생은 50대가 주류이다. 전문가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토에 따라 기업퇴직자들이 대다수이다. 아직까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심화된 교육은 앞으로 보완해가야 할 숙제이다.

28페이지에 수료생 143명의 현황이 나와 있다. 7기 현재는 현장실습 중인 관계로 통계에서 빠져 있다. 49%가 현재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급이든 무급

이든 취업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유급 23%는 인생이 정말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분석은 이르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업이 확장될 필요성은 있다.

확산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다. 30페이지를 참고 하길 바란다.

단기과제로는 본인의 구체적 욕구는 기본과정을 통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보급하기 위한 것들이 체계화되어야 하고, 모델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인 비영리기관도 전문 퇴직자 분들에게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함께 인식해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NPO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해야 할 것이다. 내용과 사업을 다양화,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식을 바꾸기 위해 활동적 고령화라는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은퇴한 고령자가 어떻게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사회에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준다면 앞으로 더욱 사업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 김운호 교수(경희대 NGO 대학원)

의미와 성과, 배운 내용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었다. 비영리단체에서도 이런 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발제 2> 중고령자의 NGO 참여를 위한 제언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어떤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다. ‘자신은 평생 제 자식과 집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살겠다’고. 부러웠다.

NPO, NGO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느끼는 대로 간단히 말하겠다.

사회발전은 경제지수로만 재어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양이 많은 것은 좋지만, 꼭 많아야만 하는가. 발전한 사회라는 것은 공동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것들을 느껴야 할 때 발전한 사회가 아닐까. 그렇다면 행정시스템의 선진화

말고도 약자에 대한 배려, 공공성에 대한 인식, 잘 어울리는 사회구성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27페이지를 참고 해 주길 바란다. 이제는 어떻게 수비를 잘 할 것인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소비할 것인가, 어떻게 공공지수를 높일 것인가. 돈을 적게 줄이고도 즐겁게 사는 문화는 불가능한가. 등을 고민해야 자발적인 사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엔지오에 대해 사회가 성장하는데 반대만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만 봐도 **GDP의 9%**. 미국사회 유지가 가능한 것은 작은 지역사회에 공동체들이 뿌리박고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고민하는 데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 그분들은 가정의 생계, 회사, 자기가 일하는 공공기관에서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살아 남느냐가 주요 관심사이다. 따라서 관심도가 낮다. 가장 큰 부분이 주부들이다.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 교육 문제에 관심, 먹거리, 환경문제, 지역사회 놀이문화 등 사회 유흥시설 등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부들의 **70~80%**가 **NGO**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개인적인 삶을 정리하시고 공익적 삶을 살고자 하시는 이런 분들이 대상이다. 이 분들이 어떻게 공공적인 부분에 참여할 것인지와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가 관건이다.

기존의 사적 영역과 다른 부분은 사고와 가치관의 차이이다. 그동안 기업영역이나 행정영역은 효율성이 가장 큰 가치이다. 적은 인원과 큰 효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NPO**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 많은 사람들의 토론, 결과를 집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이 생소할 것이다.

또 제도적, 구조적으로 **50대** 분들을 받아들이기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다.

개인 분야와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로 나뉘는데 개인이 잘 할 수 있고, 관심 있었던 것들이 사회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이 공익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있다. 일본의 사전을 만드신 분, 민간 전승부분, 특정 부분의 역사 등에 대한 연구, 저술활동이 그 예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의 예는 놀이터의 놀이기구 고치는 것이 있다.

민주사회에서의 상호감시와 상호견제도 중요할 것이다. 주민자치가 방만하거나 예산이 소모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개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전문성을 활용해 지적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국가적 의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이 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어려워하거나 기피하는데, 공공기관의 매커니즘이나 의제설정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룹적 부분이 될 수도 있다. 한 가지는 사적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소수로 모여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촛불시위처럼 인터넷공간에서 관심별로 취미별로 모였던 단체들이 함께 토론해 참여하는 한다. 이런 소모임이 많이 생겨날 수록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자발적으로 시작하면 자발성은 높지만,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활동하고 있던 **NGO** 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있다. 기존의 룰을 지켜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기존의 영역에 자문위원회나 전문위원회로 참여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다. 이럴 때 일하는 방법을 체득하면 동화가 쉬울 것이다.

두 번째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 하는 데에 발언하는 것이다. 환경 등 각종 단체에 들어가 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엔지오는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어르신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다. 대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 설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사회에 몇 퍼센트나 되는가. 그래서 동참하는 일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 상근활동가로 활동하는 것이 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는 상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하는 상근 등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존의 조직에 들어가는 일이므로 기존 조직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43페이지), 어떤 일이 필요한 지에 따라 역할이 배분된다. 엔지오단체의 경우 상근자가 10명이 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가와 예산배분 등이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이해하고 가야 할 것이다. 엔지오단체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그런 진입장벽도 있을 것이다.

자율적인 엔지오의 80~90%가 정규적인 수입이 예상되지 않는 예산을 세우고 산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생각보다 사회 공익적 삶을 생각하며 산다. 따라서 무료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1년, 6개월 드나들다 보면 어떻게 운영,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기대보다는 자원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토론 1> 이소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 부연구위원)

오늘처럼 뜻 깊은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니어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완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이제는 노인이 사회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향해야 할 듯하다.

중고령 퇴직자의 사회 활동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삶의 목표와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커리어에 따라 목표가 설정되는 기존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의미는 효율적인 사회발전의 모델을 보여준 것이다. 좋은 사회적 자원이라고 다수가 공감한다. 정부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효율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첫 번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청장년기의 의무가 퇴직이후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무기력한 노년의 의미를 탈각시키자는 목적이다. 퇴직자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공할 자원이 있는 퇴직자만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은 부분적, 보완적 역할만이 제공 될 것이다.

효율성이나 유용성보다 삶의 의미와 행복이라는 것으로 퇴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받아안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에 대한 애정과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열려있을 수 있어야 물리적으로 폭을 넓히는 것만이 아니라 적절히 편차를 수용해서 연결하여 교육시키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행복설계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시스템도 다변화되어야 한다. 프로그램도 보다 정교화 되어야 한다.

사회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

다. 퇴직 후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하고 싶은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응답이 3분의 1이었다. 삶의 피로가 쌓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고 개인의 능력, 역량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 사회, 과학 등의 교양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될 수 있고, 포괄적이고 풍부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퇴직한 이후에 노후에 뭘 하고 지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일찍 노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 세우는 퇴직준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에게 근로자로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기업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전직이나 재취업 등의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는 조기퇴직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노후설계교육을 받으면 편차가 클 것이다. 개별적인 영역보다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현재 노인비율이 10%를 넘어섰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사회의 행복지수는 사회의 다수의 인원이 행복하다고 느껴야 올라가는 것이다.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이런 사업의 병행이 있어야 우리사회의 행복지수가 올라 갈 것이다.

<토론 2> 전병유(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부정책을 만들어 내리는 하향식 경험만 가지고 있었는데 현장의 NGO,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의 발표가 생생히 다가왔다. 돈이나, 일, 이런 경제학적 시각의 해피시니어 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보도록 하겠다.

타겟이 잘 설정 되었다. 시의적절 하다. 경제위기, 실물경제위기와 함께 조기 퇴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전문가적 능력이나 숙련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쌓아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로 환원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고령화가 지나치게 빠른 우리사회.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활동적 고령화, 점진적 은퇴가 국가 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되고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령화되면서 선택이 제한되어 있었다. 자영업쪽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과도한 밀집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도 해피시니어 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지역은 여성과, 자영업자, 어르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기도 한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장년층이나 남성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여성이나 자영업자, 어르신들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정감시에 전문적 역량을 가진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것의 의미가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분들이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책적 대안이나 수단이 굉장히 부족한데 해피시니어의 타겟팅 대상이 그분들이라 생각된다.

국민연금수령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10년 후 정도가 될 텐데, 앞으로 더 사회공공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는 첫째, 민간 비영리단체 활동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과 둘째, 엔지오의 필요와 전문적 능력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지, 세 번째로 다른 작업방식을 어떻게 적응시켜 줄 것인지 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행복설계아카데미가 잘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에 대해서 과거에는 자원봉사들의 무조건적인 헌신을 생각해왔으나 옳지 않은 것 같다.

정부정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서구나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일정 틀을 잡아 놓고 그것을 넘으면 지원해주는 체제이다. 그것을 바꾸고 공공재정을 지원하는 틀로 가야 하겠다. 그 대상도 네트워크나 조직적인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인프라를 지원받는 형태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개별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인프라 형태로 지원받는 체제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토론 3> 이강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공익적, 무보수적인 분야를 주로 발표하겠다.

시민사회 특징을 나타낸 도표이다. 기업이나 정부조직과는 많이 다른 NGO 단체이다. 기업, 정부-수직적 상하조직, 민간단체는 수평적 단체. 이 차이를 잘 모르고 과거에 하던 방법으로 하려 하면 되짜맞기 십상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조직을 구성해서 시작한다. 자원봉사자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하면서 상근자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열정 차이로 인해 변화가 끊임없이 요구된다. 자원활동가가 없어지면 시민사회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가드너 공동체의 요건을 10개로 밝히고 있는데, 모두 자원봉사자와 관계된 것.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신뢰도가 더 낮다. 사회 자본의 바탕인 신뢰가 중요하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 시민, 시장, 정부가 중요한데, 하나가 부족하면 기우뚱해 독재 등으로 나타난다. 98년부터 토니블레어가 시민사회와 협정을 맺었다.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 요지이다.

자원봉사활동의 광범위성.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영역을 가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영리를 위해서는 안된다. 그 이외에는 다 가능하다.

우리 사회에서 고급 지위를 가지셨고, 고급 지식을 가지셨던 분들이신데, 효율성을 중요시하실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가들은 단위 임금이 높다. 이런 분들이 그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맞는 부분에 가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 스킬베이스드 발런티어링이 세계적으로 지향점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은퇴자 중심으로 교육을 할 때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NGO 단체의 실무자와 함께 교육을 받으면 배치가 되도 유연하게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급자원봉사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불성설이다. 200만원이면 최저임금의 몇배, 그걸 어떻게 유급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거리 자체가 도전이고, 일을 하면서 동료들을 사귄 수 있다는 보람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개인이 아닌 조직, 사회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관리를 통해 지속 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토론 4> 한석규 (행복설계아카데미 5기 수료생 대표)

느끼고 변화해왔던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것이다.

국내 한 유수은행에서 32년을 일하고, 퇴직한 지는 5년이 조금 넘었다. 32년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자유 시간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설렜다. 자식걱정, 건강걱정, 노후자금걱정 등을 하며 쉬는 것이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

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수록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커지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5년이라는 시간이 다른 제2의 일을 찾으려는 조급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먼저 눈높이를 낮추기로 하였다. 그러나 몸에 밴 사고방식은 열나게 만들고 후회를 반복하게 하였다. 이런 가운데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알게 되어 등록하였다. 제 2인생에 대한 눈이 열리는 계기였다.

사회연대은행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이웃의 삶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현재 필리핀 공동체 발런티어로 주 1회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카메라를 팔아 어머니의 병원비를 낸 카메라감독의 얘기를 들었다. 57년 24세에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와 수녀가 된 수녀님의 천사 같은 얼굴도 보았다. 그들의 세계를 일부나마 알게 되고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된 다문화가정을 알게 되었다.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봉사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가지 않은 길이 너무나 많다는 박원순 상임이사의 말을 체감하고 있다. 관심 있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할 수 있겠다. 앞으로 남아 있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루자 말았으면 한다. 시작은 절반을 넘어서 인생 후반부의 의미를 상승시킬 것이다. 며칠 전 6기 졸업식에서 박원순 상임이사는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말했다. 동창생 여러분과 희망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시니어스, 비 엠비셔스”라고 외치고 싶다.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경험과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명품이사가 되기를 권한다. 행복설계 아카데미를 거친 후 나의 삶은 많은 변화를 거친 것 같다. 2008년은 나에게 이모작의 씨를 뿌린 해이다.

<질문> 정미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소)

사업운영과 관련된 질문이다. 서울 아닌 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실무자는 가시적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데, 단순히 교육 참여자 수, 등으로 보여 지기는 한계가 있을 듯하다.

<답변> 홍선미 교수 (해피시니어 사업단장,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현재 해피시니어 사업은 시범적일 수 있다. 많은 퇴직자분들이 계시지만, 한 기에 30~4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애가 있을 것이다. 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다.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함께 그대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많은 지역에서 함께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다. 민간 기금이나 지역 단체에서의 개별적인 자금마련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 등 민간기금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안생명의 후원을 받아 3년, 내년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좋은 강사진과 연구원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1년 단위인 경우인데 반해 3년으로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 느리게 가고 있는 사업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도 있었던 것이다.

<질문> 행복설계아카데미 7기 수료생

정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건의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원봉사도 자기 전문 분야에 투입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봉사에 대한 교육을 받아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기초교육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배치 받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지금 활동기간이 1년정도 되는데, 프로그램이 시작될 즈음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기수별로 동기회인 원우회가 진행되고 있어 네트워크망,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 복덕방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계해주면서 교육을 해준다. 국번 없이 1365번으로 걸면 되니 시범삼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답변> 이학영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여기까지 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보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런 반면 NGO들은 시스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NGO의 목적은 공익활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문을 두드리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뜻은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으므로 정책결정자들을 만나 의논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엔지오와 수료생들의 만남의 장 등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 훌륭하게 여러분의 삶을 가꿔가시기 바란다.

용어 사용 등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도록 할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사회적 보상으로 매꿔가길 바란다. 그런 기대와 의미들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니어들이 인구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이다. 이럴 때에는 자원봉사만을 강요할 것이냐, 나머지 사람들이 시니어들을 먹여 살릴 것이냐 등의 문제가 발생할텐데, 산업주체가 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노인에 관련된 사업은 노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문> 조용숙(경희대 3학년)

NPO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에서는 제도적 마련을 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지금 국가가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지?

NGO나 NPO 차원에서는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에서는 내용을 채워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부에서는 노년기 퇴직 이후 교육 문제 등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퇴직 준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대시키고 사회주체들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정책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프라 구축 등이 내용으로 들어가기는 했다. 정책이 시류를 많이 타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이 많지만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답변> 김운호 교수 (경희대 NGO 대학원)

전철을 종로3가에서 갈아타면서 보니까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1999년 NGO 세계대회를 준비할 때 탑골공원을 가보니 노인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하프타임이라는 단어가 있다. 앞에서 뛰어온 인생을 돌아보고 후반부를 계획해야 한다는 의미였는데, 50~55세 정도 되면 사회생활이 22.3년 되는데, 퇴직 이후에 살아가야 할 인생이 22~23년 정도 되는 것 같다. 퇴직 이후에 우리는 인생을 위해 정부는, 사회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투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 분개했다.

자녀를 잘 길러 대학 잘 보내는 게 노후보험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의든, 타의든, 인생의 절반을 정리하고 후반부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자리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

이제부터 웰빙의 삶이 아니라 웰다잉의 삶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지식, 경험, 시간, 능력 등을 나 개인과 가족, 연고중심으로 썼다면 이제 후반전은 이 사회,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선을 위해서 사회적 만족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전문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은 뜻 깊은 자리에서 세미나가 논의됐던 사안들이 해피시니어 프로그램에 잘 반영되고, 지역으로, 사회 각계로 퍼져서 더 행복하고 더 보람을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다.